

1~3주차

먼저 Praat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을 배웠다. Praat은 음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주에는 기본적인 영어 음성학에 대해서 배웠다. 음성학(Phonetics)과 음운론(Phonology)은 비슷해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Phonology는 절차적, 인지적인 부분을 다루지만 phonetics는 더 깊고 물리학적인 부분을 다룬다. 영어의 모든 소리는 유성음(voiced sound)과 무성음(voiceless sound)으로 나뉘지는데 이는 목이 떨리는 것과 떨리지 않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음은 전부 유성음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 나오는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있는데 코로 나오는 소리인 비음에는 m, n, ŋ이 있다. 모음은 monophthongs (단모음)와 diphthongs (복모음)로 나뉜다. 조음 기관에는 lips, tongue tip, tongue body, velum, larynx가 있다. Epiglottis는 기도로 가는 길을 막는 뚜껑 역할을 해서 침을 삼킬 때 등의 경우에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가 숨이 막히는 일을 방지해준다. 비음을 발음할 때는 velum이 lowered 된다. 모든 모음과 비음이 아닌 자음을 발음할 때는 velum은 raised되고 nasal track은 막힌다. 코로 숨을 쉴 때는 velum이 lowered 되고 nasal track은 열린다. Larynx는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분하는 조음기관 역할을 한다.